**자유로운 사랑의 종**

**<갈라디아서 5장 1-16절>**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종이다. 자유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한 13절에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는 얘기는 나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통 두 종류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등,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 금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입니다. 무엇 무엇’에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교육을 위한 자유, 의료혜택을 위한 자유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 누리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늘어날수록 자유롭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이 두 종류의 자유를 모두 경험합니다.

먼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내려질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둘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죄로부터의 자유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이에 굴복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던 상태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사랑에로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으로 사랑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초청에 응답하여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에로의 자유를 향유할 가능성과 기회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포된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계시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모순 관계가 아니라 역설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랑 가운데 향유 되지 않는 자유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 가운데 사랑하도록, 자유로운 종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 가운데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된 후에야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교만한 사람, 자신이 다른 죄인들과 같은 취급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만이 이 은혜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마을에서 가장 죄인으로 취급되던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온 삭개오는 자리에 앉기 전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값겠나이다”

이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입은 은혜에 대한 그의 자연스런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그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될 차례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내가 그를 용납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교회에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은 다시 율법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롭고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유무가 구원과 관련해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근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구원과 관련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 믿음,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결코 아무 온기도 생명력도 없는 화석화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무언가를 일으키는 믿음이며, 그 ‘무언가’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생활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벌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윤리로 강제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야 합니다. 오직 그러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자유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와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됩시다!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의 종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은 온 세상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